



## 골프 여제 양보 못해

US여자오픈 내일 개막...신지애·커·미야자토 세계 1위 경쟁, 최나연도 왕관 눈독



신지애 크리스티 커 미야자토 아이

제65회 US여자오픈골프 챔피언십(총상금 325만달러)이 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오크먼트의 오크먼트 골프장(파71·6613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은 대회의 전통이나 규모로 볼 때 메이저 중의 메이저 대회로 꼽힌다. 특히 이 대회에 이어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에비앙 마스터스가 22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고 29일부터는 브리티시오픈이 시작돼 팬들의 관심이 더 뜨겁다.

▷세계 1위 '양보 없다' = 맹장 수술 이후 대회 2개를 건너 뛰느라 세계 랭킹 3위로 밀린 신지애(22·미래에셋)와 크리스티 커(1위·미국), 미야자토 아이(2위·일본)가 펼쳐는 '1위 경쟁'이 메이저대회에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들 셋뿐 아니라 4위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5위 최나연(대한)까지 언젠간 1위에 오를 수 있는 격차다.

6일 현재 랭킹 포인트는 커가 10.55점, 미야자토가 10.39점으로 다소 앞서 있는 가운데 신지애는 9.63점, 페테르센 8.98점, 최나연은 8.35점이다.

올해 가장 페이스가 좋은 선수는 단연 미야자토이다. 벌써 시즌 4승, 상금 96만 달러를 벌어들여 1위를 질주하고 있다. 2승과 함께 평균 69.4타로 최저타수 부문 1위에 올라 있는 커도 두 번째 메이저대회였던 LPGA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메이저 2관왕'에 도전한다. 아직 올해 우승 소식이 없는 신지애는 시즌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일궈내며 하반기 대반격을 시작할 태세다.

▷코리안 메이저 퀸 나올까 = 이번 시즌 4승을 합작해낸 '코리안 시스터스'가 메이저 왕관도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US여자오픈은 2008년 박인비(22·SK텔레콤), 2009년 지은희(24)가 우승해 한국 선수들이 3년 연속 정상에 도전한다. 올해 열린 두 차례 메이저대회는 나비스코 챔피언십 청야니, LPGA 챔피언십 커가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신지애와 함께 우승 도전의 선봉에 설 선수로는 역시 최나연(23·SK텔레콤)이 첫 손에 꼽힌다. 5일 끝난 제이미와 오펜스 코넬클래스에서 연장 접전 끝에 우승하며 개인 통산 3승째를 거둔 최나연은 여세를 몰아 첫 메이저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우승자 지은희는 타이틀 방어에 나서고 3월 KIA 클래식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던 국내 일인자 서희경(24·하이트)과 유소연(20·하이마트) 등도 국내파의 자존심을 걸고 출전한다. 제이미와 오펜스 코넬클래스 연장전에서 생애 첫 우승 기회를 아쉽게 놓친 김송희(22·하이트)와 재미교포 위성미(21·나이키골프)도 눈여겨볼 선수들이다.

▷흥미로운 1,2라운드 조 편성 = 6일 발표된 1,2라운드 조 편성에 따르면 신지애는 미야자토 아이, 위성미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신지애와 미야자토가 벌이는 세계 1위 싸움은 물론 L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온 키가 157cm인 미야자토, 155cm인 신지애가 183cm의 장신에 '파워 히터'인 위성미와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된다. 크리스티 커와 청야니,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를 함께 묶은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삼국왕 서희경과 요코미네 사쿠라(일본)가 브라타니 린시킴(미국)과 실력을 겨루는 장면도 흥미를 돋울 것으로 보인다.

연필뉴스

## 한국, 월드컵 페어플레이상?

1위 스페인 925점... 44점 뒤진 2위로 깜짝 수상 가능성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페어플레이 순위에서 2위를 달리고 있어 '깜짝 수상'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6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 웹사이트에 발표된 페어플레이상 순위에서 한국은 4경기에서 평균 881점을 기록해 925점을 획득한 스페인에 44점 뒤진 2위에 올랐다.

FIFA 페어플레이 위원회는 월드컵 16강 진출국을 대상으로 조별리그부터 모든 경기에서 벌인 반칙, 경고, 퇴장 등 기록으로 평점을 매겨 경기당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팀에 페어플레이상을 주고 있다.

한국은 조별리그 세 경기와 16강전 등 4

기에서 6개의 경고를 받았고, 파울 수는 55개로 16강 이상 진출팀 중 12위이다.

스페인인 조별리그에서 단 한 차례의 경고도 받지 않는 등 총 5경기에서 기록한 옐로카드가 3장에 불과하지만, 8일 독일과의 4강전 등 중요한 경기가 남아있어 스페인의 남은 경기 기록에 따라 한국도 충분히 수상자가 될 수 있다.

3위는 870점을 기록한 아르헨티나였으며, 브라질과 네덜란드가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가나와 8강전에서 핸드볼 반칙으로 골을 막아 '2010년관 신의 손' 논란을 일으키며 4강에 진출한 우루과이는 11위에 그쳤으며, 멕시코는 16개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연필뉴스

## 마라도나, 아르헨 감독 사퇴 시사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로 꼽혔다가 8강에서 탈락한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 감독이 사령탑에서 내려오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아르헨티나 케이블 방송인 크로니카 TV는 6일(한국시간) "마라도나가 월드컵을 끝내고 아르헨티나로 귀국하고 나서 '나의 시절은 이제 끝났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며 "감독직에서 내려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마라도나는 이에 앞서 귀국길에 오르며 "아직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았다. 가족과 친구, 축구협회와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마라도나의 깜짝 발언에 아르헨티나축구협회도 진상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축구협회 대변인은 "마라도나가 아직 공식적으로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축구협회가 직접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필뉴스

## '마린보이' 박태환 9일 귀국 "수영 즐거움 되찾았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부활의 날개를 펼 수영스타 박태환(21·단국대) 올해 두 번째 국외 전지훈련을 마치고 9일 귀국한다. 4월20일 출국한 이후 80일 만이다.

박태환은 그동안 호주 브리즈번 세인

트피터스웨스턴 수영클럽에서 노민상 경영대표팀 감독과 마이클 볼 호주 국가대표팀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탐금질해 왔다.

귀국을 앞둔 박태환에게는 이제 지난해 로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실패에 대한 기억은 찾을 수 없다. 박태환은 6일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것, 무엇보다도 수영에 대한 즐거움을 되찾은 것이 이번 훈련의 가장 큰 수확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필뉴스

## '16강 영웅' 이젠 K리그 무대

이번 주말 전남-포항, 전북-대구 후반기 첫 대결 이동국 등 전사들 합류...김정우는 군사훈련 입소

달콤한 월드컵 박학을 끝낸 K-리그가 기지개를 켜다.

2010 K-리그가 7월 10일 오후 7시 전남-포항, 전북과 대구의 경기를 시작으로 재개된다. 지난달 6일 포스코컵 조별리그 경기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남아공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태극전사들도 팀에 합류해 K-리그 무대를 준비를 끝냈다.

10일 대구 FC와 홈경기를 갖는 전북 현대는 이동국을 위한 '라이온킹 데이' 행사를 준비했다. 남아공에서 아쉬움을 안고 돌아온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 이동국의 후반기 선전을 위한 응원전이다.

조지력이 흔들리며 10위로 전반기를 마감한 전남 드래곤즈는 원정길에 나서 포항 스틸러스와 후반기 첫 대결을 갖는다. 이번 월드컵에서 대표선수를 배출하지 못했던 전남은 휴식기 동안 태백으로 하계 전지훈

련을 다녀오며 조직력강화에 주력했다.

광주 상무는 7월1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 FC와 후반기 첫 대결을 갖는다. 9위를 달리고 있는 상무에게는 올 시즌이 광주에서의 마지막 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선전을 다짐하고 있지만 전력누수가 불가피하다.

공격의 핵심 최성국과 주장 최원권 등이 오는 10월 제대를 앞두고 있고, 한국팀의 월드컵 원정 사상 첫 16강을 이끈 국가대표 미드필더 김정우의 합류도 늦어지게 됐다.

6일까지 포상휴가를 즐긴 김정우는 8일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다.

지난해 11월30일 군국체육부대에 입대한 김정우는 1월 축구대표팀 해외전지훈련 일정상 불가피 하게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다. 뒤늦게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해

김정우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다.

K-리그 큰 잔치인 올스타전 준비도 시작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일 디펜딩 챔피언 전북의 최강희 감독을 올스타전 감독에 선임했다.

8월 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는 2010 올스타전은 한국-스페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세계적인 명문클럽 FC 바르셀로나를 초청해 진행된다.

국가대표급으로 꾸러질 올스타팀은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K리그 기술위원회가 포지션별 약 4배수를 추린 후 온라인 팬투표로 베스트11을 뽑을 예정이다. 팬투표는 K리그 홈페이지(www.kleague.com)에서 오는 8일 시작된다.

베스트 11이 확정되면 최강희 감독과 K리그 기술위원회가 7명의 선수를 추가로 선발해 최종 18명의 선수단을 확정한다.

/김여울기자 wool@



## '풍운아' 최향남 이번엔 日무대 도전

美프로야구 떠나 오릭스서 입단테스트

볼록에 '꿈의 무대'인 미국프로야구에 대한 도전은 멈추지 않았던 '풍운아' 최향남(39)이 방향을 바꿔 일본프로야구 입단을 타진한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닛칸스포츠'와 '스포츠초치'는 6일 인터넷판에서 최향남이 오릭스 버펄로스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는다고 전했다. 최향남이 일본 구단의 정식 테스트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향남은 이날부터 11일까지 고베에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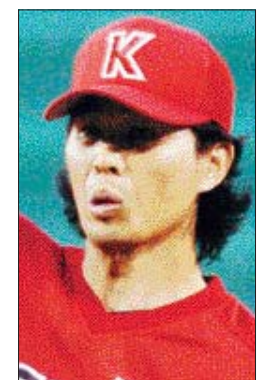
오릭스 연습장에서 기량을 검증받고 8일에는 1군 훈련에 참가, 오카다 아키노부 감독의 눈도장을 기다린다.

무라야마 오릭스 운영부장은 "정말로 팀에 보탬이 될 전력일지 제대로 판별하고 싶다"며 계약에는 신중할 태도를 나타냈다.

키 186cm, 86kg의 호리호리한 몸매를 갖춘 최향남은 국내에서 통산 51승65패, 15세이브를 남겼고 마이너리그에서는 18승9패를 기록했다. 지난 2년간 메이저리그 로스앤젤

레스 다저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 A 엘버커크에서 뛰었던 최향남은 최근 방출을 통보받았다. 중간계투로 나와 작년에는 9승2패, 평균자책점 2.34라는 좋은 성적을 남겼음에도 나이가 많아 마이너리그 무대를 밟지 못했고 올해는 12경기에서 1승2패, 평균자책점 5.84로 부진했던 탓에 퇴출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1990년 KIA의 전신인 해태에 입단해 LG(1997~2002년)에서 활약했던 최향남은 2003년 11월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입단 테스트를 받고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에 도전했다. 2004년 2월에는 대만 프로야



구 류뉴 베이스의 문도 두드렸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 방황을 접고 그해 친정 프로야구 KIA에 입단. 2년을 뛰다 2005년 말 휴면히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고 2007년과 2008년에는 롯데 유니폼을 입고 사직구장 마운드에 섰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최향남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2009년 다시 메이저리그 문을 두드려 포스트시즌(101달러)을 통해 세인트루이스 마이너리그에 입단했다. 하지만 곧바로 방출당했고 우여곡절 끝에 엘버커크에 등지를 틀었다.

연필뉴스